

특별취재

정읍시 산림휴양단지 운영증진보고회

정읍시는 최근 시민에게 선진 산림휴양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주 5일제 근무와 학생 등 주 5일제 수업이 정착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주말에 휴양지를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산림휴양을 찾는 시민들이 단순한 탐방에서 체력, 체류를 목적으로 휴양을 즐기고 있으며 2015년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약 1,500만 명이 산림휴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산림휴양시설이 시민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휴양단지 조성의 첫 번째 단계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계획, 휴양토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것이며, 용역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휴양단지의 필요성과 미래의 산림휴양예측, 휴양단지 조성 시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하고 정읍시만의 특색 있는 산림휴양단지가 조성되도록 주문하였다.

정읍시에서는 2017년 까지 약 47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완료하고 국비 등 50억원을 확보 하여 2021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 이후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센터, 유아의 숲 등 기타 휴양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

경북 영천시연합회와 자매결연

사)한국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회장 박연석)와 경북 영천시연합회(회장 한용호)가 지난 8일 농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단체 회원과 유제관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김선홍 경북도 연합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 단체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 홍보·판매, 격년제 상호 방문 및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안군 연합회 박연석 회장과 영천시연합회 한용호 회장은 환영사 및 답사를 통해 양 단체가 상호 신뢰를 통해 모두가 부자 되는 선진 복지농촌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조용환 부안군 농업경영과장은 축사를 통해 "양 단체가 상호 신뢰를 가진 두 시·군이 영호남 교류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진봉면민의 날 · 보리밭축제 성료

제9회 진봉면민의 날 및 2016 지평선 추어의 보리밭 축제가 6일부터 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심창초등학교 및 망해사 인근 보리밭에서 6개 마당 26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지역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방문객에게는 초록의 보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의 장이 됐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1.6배인 지평선이 보이는 전국 최대 규모 1천400ha의 보리밭에서 펼쳐진 지평선 보리밭 가요제와 국악, 스포츠댄스 등 진봉 어울림 공연,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은 광활한 초록의 보리밭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환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만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정읍 자생화 전시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정읍 자생화 전시회 '성공작'

석부작 · 목부작 등 우리꽃 540여점 전시 관람객들 탄성 자아내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제12회 정읍 자생화 전시회가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정읍시 제2청사(농업기술센터)에서 3만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600㎡의 원형전시장에 석부작, 목부작 등 우리꽃 자생화가 540여점이 전시되어 전국에서 모인 자생화 애호가들과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작품 특별 전시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토마토, 참깨소수확 및 심기 체험, 곡물아트를 무료로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으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으로 정읍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대행사로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부문에서는 ▲대상(양제희/한솔초), ▲최우수상(이유라/한솔초), ▲우수상(이지현,이시현/정우초), ▲장려상(양관혁,노민경,문조연/한

솔초)을 수여하였다. 또한 자생식물교실, 보고 기구고 즐기고 먹는 힐링원예라는 주제로 원예치료세미나를 개최하여 2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 자생화 전시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생화 축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정읍시민은 물론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봄을 일리는 전령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준비 만전

12개 기관 200여명 실무협의회 개최

부안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 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2개 기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실질위주의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점검하는 훈련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6일 6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부안읍 일원에서 민방위 대피훈련과 교통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17일에는 풍수에 재난대비 훈련을, 18일에는 다중이용시설 붕괴 및 대형화재 실재 훈련을 실시하고 20일에는 불시 메시지 훈련을 할 예정이다.

특히 19일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붕괴 및 대형화재 훈련은 30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 훈련으로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강진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설정해 부안군과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고희대대, 한국전력공사 등 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훈련이 진행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훈련은 도상훈련을 지양하고 현장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농업법인 운영 · 관리 실태조사

농기센터서 8월 26일까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실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부터 8월 26일(17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 실태조사로서 앞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김제시에 현재 등록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688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66개소로, 총 855개의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지난 2일

읍면동 조사담당자에게 농업법인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법인을 현장 방문, 면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농업법인유형 및 명칭, 대표자명, 연락처 등 법인현황, 운영현황, 세부사업 및 목적의 사업여부, 법인실적 추측여부, 농지소유현황, 법령위반 여부와 특이사항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 행사에는 4-H연합회(회장 고보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하여 약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김제 지평선한우 국밥 나눔 행사

1000여명에게 대접

김제시 지평선한우농조합법인(대표 이현송)과 김제시 한우협회(대표 고상현)는 지난 6일 김제시체육회관에서 김제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평선 한우 사랑의 국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지평선 한우 사랑의 국밥 나눔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올해 4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현재 예년보다 700명에서 더 많은 1000명에게 대접할 국밥을 준비하여 소외계층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나눔의 행사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지평선한우농조합법인 조합원과 한우협회 김제시지부 한우 사육농가를 위주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올해는 4-H연합회(회장 고보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약 8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범 지역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은 "우리 김제시 공품브랜드 지평선 한우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군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부안 군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생활 속에서 삶을 생각하고 인간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립도서관은 강 사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안의 흔적 따라~ 인생과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강연 4회, 탐방 2회, 후속모임 2회를 진행한다. 5월 9·16·23·30일 김호삼 선생님과 함께 삶과 시와 사랑에 관해 해 8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강연과 탐방 후속모임이 진행되며 6월 9·10·23·24일은 정재철 선생님과 함께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옛 사신을 통해 본 부안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미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gift s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